약사정사 생전예수재, 마가 스님 초청법회

생전예수재 동참자와 함께 마련한 쌀 100포 진주시 복지재단에 전달
마가스님, 불자들에게 실천행 당부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는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를 맞아 초청 법회를 열었다.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는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를 맞아 초청 법회를 열었다. 약사정사는 3월 19일 2층 대법당에서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초청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진여 스님은 생전예수재 동참 불자들과 함께 마련한 백미 10kg 100포를 진주시복지재단 박성장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진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는 약사정사 진여스님, (사)자비명상이사장 고성 옥천사 마가스님, 무상사 근해스님, 길상사 지원스님, 보명암 원정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경상국립대 연화회 지도법사 김용진교수, 한국선비문화원 최구식원장, 진주시복지재단 박성장 사무총장, 도리원 천영란 원장, 법화회 정한숙신도회장, 약사정사신도회, 연화회 하동현회장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수재를 봉행하면서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와 해법을 찾고자 마가 스님께 부탁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하는 법문을 듣고자 초청했다"며 "부처님 말씀에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큰스님을 모시고 큰 법회를 하게 된 것은 큰 복을 지어 놓은 것 갔다"고 말했다.

국립경상대 연화회지도법사 김용진 교수는 축사에서 "약사정사 진여 스님은 지역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연화회 불교학생회 창립에 밑받침이 되어 주신 분"이라며 "새벽마다 법화경 독송 수행을 하시는 중에도 매년 자비나눔을 실천하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옥천사 마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음력과 양력의 차이에서 3년에 한번 돌아오는 보너스 같은 윤달은 그동안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며 "내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꽃공양을 올려서 기분도 좋고 아름다운 염원을 담아서 실천행을 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내안의 팔만사천가지의 분별심은 수행실천과 타인과의 관계 설정으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작은 아바타"라며 "절에서 삼천배보다 더 큰 의미가 가족과 자식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이다. 나와 함께 있는 그 분을 부처 대우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세 곳의 절을 가야하는 이유로 간절, 친절, 미고사(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절을 꼽고 "수행과 바람도 간절하게 부처님 대하듯 간절하게 해야 한다, 내면의 자성과 부처님이 개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고사 마지막 절은 가정 집안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한숙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수재를 맞이하여 자비 나눔과 마가스님의 좋은 법문으로 감사함과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보문행 불자는 "인터넷으로 새벽기도에 동참해왔는데 스님의 모습이 마치 친정엄마 같고 관세음보살님 같아 편안한 마음이 생겼다"며 "생전에 처음으로 내려놓고 자신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변화가 있고 자존감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동현 경상국립대 연화회회장은 국립 경상대학교 불교동아리 탄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진여 스님과 도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사회복지요양원 도리원 천영란 원장은 포교활성화 기금 100만 원을 경상국립대학 불교학생회 연화회 하동현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법사 어린이문수회 개강 및 파라미타 발대식

초등학생 115명 새롭게 입회
매주 토요일 다양한 체험활동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3월 18일 2층 만불전에서 어린이문수회법회 개강식을 개최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3월 18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어린이문수회 법회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파라미타 발대식과 함께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됐던 어린이문수회법회에는 115명의 초등학생이 입회했다. 1학년 반야반, 2학년 문수반, 3학년 보현반, 4·5·6학년 지혜반으로 구성된 어린이문수회는 지도법사 초일 스님과 선생님들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정법사 3층 문수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어린이문수회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정기법회, 운동법회, 참회법회, 생일법회, 연꽃문화제, 성지순례, 소풍법회, 여름불교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문수회 어린이들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도 가입해 문화재와 그 주변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탐구 활동, 문화재를 가꾸고 가치를 새롭게 하는 즐거운 창의활동,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창의적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게 된다.

정법사 대자유치원 박선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법회는 정법사 문수회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시청에 이어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 파라미타회장인사, 정법사임원진 소개, 법사스님 및 교사소개, 사홍서원, 반별 오리엔테이션,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초일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김선정 신도회장 및 임원진, 박선영 대자유치원원장 및 어린이회 지도교사,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배워야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 늘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에게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말고 동물원에 자주 데려가 달라.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이 법회에 와서까지 공부를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라미타는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과 문화재청 민간 합동협력운동으로 생성되어 사찰의 문화재보존과 관리, 봉사 등으로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문화재청에서 봉사 점수 등 관리도 하니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라미타 가입으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보시(나눔), 지계(계율, 준법), 인욕(인내)을 잘 지키고 총재스님, 법사스님, 지도교사들의 인도에 잘 따라서 훌륭하게 자라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2006년 창립해 2008년 창원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공인된 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등록(봉사시간 인정)되어 현재 사찰 및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前 조실 명선 스님 49재 봉행



화엄사는 3월 22일 각황전에서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前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 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행 스님, 성원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 전국 비구니 원로의장 수현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교구문도 주지스님들이 참여해 명선 대종사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49재는 생전육성, 헌화 및 헌다, 문도대표 인사등이 진행됐다.

이날 문도를 대표한 진만 스님은 "큰스님의 가르침과 유훈을 가슴속 깊이 새겨 앞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덕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께서 늘 생전에 말씀하셨던 화합과 정진을 실천하는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선 스님은 1952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보관사, 범어사, 통도사, 도리사, 해인사 백련암, 상운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0년부터 제3~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화엄사 주지, 2012년 원로회의 부의장과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2일 영수 흥국사에서 법랍 70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49재에 이어 화엄사 경내 삼소교 개통식을 진행했다. 지리산과 화엄사를 연결하는 교량인 삼소교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사찰과 국립공원을 이어주는 전통식 다리로, 2021년 4월 설계에 착수해 지난 3월 준공됐으며 이날 개통식을 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선운사 영호 대종사 75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역대 조사 다례재도



선운사(주지 경우)는 3월 20일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영호당 정호 대종사 75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각각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정호당 영호 대종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스님의 큰 뜻을 이어 받아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도전에서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이어졌다. 효담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다례재에서 참석대중은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업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 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왔으며, 불교의 친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敎講院)을 설립 청담 스님 운허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하고, 저서로 〈석전시초(石顚詩鈔)〉 〈석림수필(石林隨筆)〉 〈석림초(石林抄)〉 등을 남겼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이 3월 18일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에는 쌍봉사 섬김자원봉사단 15명의 봉사자가 동참해 무생채, 냉이 국, 멸치 꽈리고추 조림으로 구성된 밑반찬 꾸러미를 만들었다.

진안지역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가구, 독거어르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51가구에 제공된 밑반찬은 쌍봉사 봉사단의 추천,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의 추천을 받은 가정에 직접 배달됐다.

쌍봉사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며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핀다.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진안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

평택 보국사 법현 스님 진산식 봉행



전통사찰 평택 보국사가 새 대웅전을 건립하고 '저잣거리 수행법사' 법현 스님을 주지로 맞았다.

보국사는 3월 18일 경내에서 '부처님 궐' 낙성식과 주지 법현 스님 진산식을 봉행하고 포교 전법도량으로 발전을 다짐했다.

진산식은 중국 선종 고승 백장 스님이 제정한 '백장청규' 정신에 따라 진행됐다. 법현 스님이 산문 각 방소에 절을 올리는 의식을 올리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 삼성각, 부처님궐, 주방인 향적당, 욕실인 향수해, 무생불전, 해우소인 동사에 각각 인사를 올렸다.

법현 스님은 "앞서간 여러 조사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덕성을 깊이 새겨 그분들이 만든 세상에 나가고자 한다"며 "다문화 포교를 진행, 지역발전을 넘어 세계일화에 앞장서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지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군산 성불사 불보살 개금불사 회향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아미타 삼존불등 법당에 봉안된 불보살상의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성불사는 3월 23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삼존불과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포대화상의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전북영산작법 보존회장 영산스님을 비롯한 보존회 스님들의 신중작법, 상단권공, 천수바라, 작법무 등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금불사 회향법회는 종현스님의 증명으로 모든 악을 떨쳐내는 팥과 청정수를 뿌리고 점필과 불보살상에 광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점안의식이 마무리 됐다.

성불사 주지 종명스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며 "정성을 다해 기도와 염불등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지혜를 얻고 공덕을 쌓아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쌍봉사 공양미 나눔 행사



탑사(주지 진성)와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강진희)는 3월 23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2000kg(10kg 200포대)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전달한 자비의 쌀은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불자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신도님들의 인연공덕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도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부처님의 가피로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신흥사, 인경 스님 취임기념 법회



울산 호국사찰 신흥사(주지 인경)가 3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인경 스님의 취임을 기념하며 대강백 요산 지안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요산 지안 대종사와 신임 주지 인경 스님, 염불암 성륜 스님, 신도회 임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법사등단, 청법가, 청법계, 입정, 법사스님 소개, 법문, 주지스님 인사,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주지 인경 스님은 "천년고찰이며 호국도량인 신흥사가 앞으로 불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안락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자 한다"며 "오늘 은사이신 지안 큰 스님을 모시고 많은 불자들과 법회를 진행해 마음이 더 없이 기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